

특집

처음과 끝, 그리고 축제 다시 태어날 노천극장

대학주보가 보내는 특별의 편지

백승철 기자 scho135@knu.ac.kr

노천극장, 그대가 떠난다고 들었다. 그대와 내가 함께 한 시간이 어느덧 56년이다. 처음 그대를 만났던 후에는 청춘들이 이제 베텔성상한 노인이 됐을 만큼 긴 시간이 흘렀다. 함께 했던 추억 역시 그 시간만큼 증명이 쌓여 남아있다.

기억하는가. 지난 1972년, 교내 유신반대 시위로 결국 학교가 45일간 휴교를 맞고 말았던 때를. 그리고 보면 그대는 서슬 퍼런 군사정권의 위계 속에서 여려 학생들을 품을 만큼 너끈했고, 그 학생들이 용기 내어 '자유'와 '정의'를 외치는 장이 되어 줄 만큼 끽끗했다. 비록 종합학생회가 해체되고 그것이 1975년 학도호국단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그대에게 헌신하는 학생들의 발걸음은 줄었지만, 학생들의 끊은 마음은 당신은 지우지 않았다.

10여 년 만인 1981년 11월, 다시 서울캠퍼스 종합학생회가 부활해 밤대식을 가진 것도 그대와 함께한 자리에서였다. 이 밤대식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학도호국단을 해체하고 종합학생회를 다시 인정했던 1985년 3월 14일 보다는 앞선 일이었다. 물론 이후 우리학교 종합학생회가 양 캠퍼스 출범과정에서 부침을 겪었지만, 그래도 이런 선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1984년 그때부터 학생들은 여느 때보다 활발하게 그대를 중심으로 '서설' 모집으로 나서며 학생문화를 다듬어갈 수 있었다.

그 이후로도 학생사회의 주요한 변곡점들이 그대 품에서 이뤄졌음을 기억한다. 정말 그대는 학생들에게 커다란 의미였구나 싶다. 1986년에도 학생들은 그대와 함께했다. '전방경계훈련' 임소를 거부하며 스크럼을 짜고 '전방입소 결사반대'의 구호를 외쳤던 것을 그대도 기억하리라. 또 학생들은 같은 해 5월에 4.19민주주의를 상향곡으로 재연하며 '미완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민주의 합성이 메아리쳐야 한다'고 외치기도 했다. 그대와 함께했던 이런 바라는 1989년 '광민통치분쇄와 광주학살·5공비리' 해결 요구와 함께 '자주 경희 투쟁본부'를 만드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서슬퍼린 군사정권 속에서도

그대는 우리를 품어주었다

민주주의를 쟁취한 이후에도 여전히 학생들의 삶은 그대와 함께했다. 학생들은 등록금 협상 때마다 먼저 그대 앞에 모여 소리를 모은 후 본관으로 향했다. 본관은 매번 수천 명의 학생을 모아 보내는 그대에 대해 투정을 부리곤 했지만, 그대는 그 투정을 짊짓 짓는 틈으로 흘러온 수십 년간 학생들을 품었다. 덕분에 2000년에는 당시으로부터 출발했던 1,200여 명의 학생들이 등록금 투쟁 '1차 결의대회'를 갖고 본관을 가 암울하겠다고 본관 내 집기를 모두 들어내는 전쟁을 선보이기도 했다.

학생들이 어려울 때마다 그대에게 향해 왔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대학이라는 새로운 공동체에 와서 서로의 얼굴을 익히고, 펼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돌리면 대단히 웃기 때문에 그대의 품 안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1962년의 '신입생환영회'를 시작으로 매년 입학식마다 당신의 품에서 새내기의 생활을 출발했다. 70년대에는 아예 '경희국민학교', '경희남중', '경희여중·고'의 입학식이 한꺼번에 치러지기도 했다. 요즘에야 언덕 위에 올라앉아 있는 평화의 전당 너ᾳ이 그 역할을 대



노천, 그대 안에서 하나의 경희였음을…

2015년 6월, SPACE21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감에 따라, 노천극장이 철거된다.

1959년 완공된 노천극장은 56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경희구성원과의 크고 작은 일상을 함께하며 많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장소다. 이에 우리 대학주보는 경희기록관과 과거 대학주보에 실린 기사를 토대로 경희인과 함께한 역사를 되짚어 봤다.

신하고 있지만, 돌아켜보면 저 어린 것보다 그대가 맞이했던 경희인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은가 말이다.

그래, 그대가 품었던 것은 비단 불의에 대한 저항만은 아니었다. 제4회 대학제를 시작으로 매년 대학제가 그대 안에서 열렸다. 학생들은 인간됨을 쓸기도 하고 카드션션을 선보이기도 하며 만연한 웃음을 떨쳤다. 그대와 함께 하던 때 행사마다 즐거움이 가득했다.

그대와 함께하며 학생들은 '새로움'의 순간을 목도하기도 했다. 1977년 5월이 대표적인 순간이었지. 그 날, 당시 안에서는 국내 최초의 '아이리버 랜드'가 선보여졌다. 개교기념식 행사 석상에서였다. 여자 28명과 남자 24명이 '걷기, 달리기, 스위밍, 자전거타기 등의 동작'을 선보였다. 그날 자리했던 사람들의 표정들이 기억나는가? 생전 처음 보는 퍼포먼스에 사람들의 놀라운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입학에서 졸업까지

그대는 우리를 성장시켰다

그중에서도 지난 1989년 양 캠퍼스가 한데 모인 '경희가족통일한마당'을 열었던 것은 그대에게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일 것이다. 서울캠퍼스의 '고황통일제'와 국제캠퍼스의 '서현대동제' 마지막 날이었던 5월 26일, 이날 한자리에 모인 양 캠퍼스 학생 1,000여 명은 "서로의 단결"을 외치며 그대 안에서 하나의 경희임을 재확인했다. 양 캠퍼스 학생 400명이 각각 편을 나누어 춤다리기도 했는데, 3대 1로 국제캠퍼스가 이겼다(그 때엔 수원캠퍼스였지만).

1999년 개교50주년 기념행사는 또 어떠한가! 물아지는 비속에서 우왕좌왕하던 사람들과 이런 행사를 통해 사람들의 머리 위를 모두 가려주지 못해 당황스러워하던 그대의 모습이, 아직도 주억으로 남아있다. 그 긴 세월 동안 최루탄이나 날아드는 투석으로부터 학생들을 지켜온 그대. 정작 기념행사 날 쏟아지는 폭우를 가려주지 못해 절망했던 그 모습이라니! 결국 우산을 펴든 사람들은 내리는 비와 옆에서 찌르는 우산 꼬챙이에 짜증을 내며 어느덧 허름해진 그대에게 투덜대곤 했지. 그래도 그로부터 10년 후인 개교60주년 기념 '경희 열린 음악회' 때는 비가 없었지 않은가.

이런 그대가 지난 4년이 넘는 세월 동안 SPACE21사업 때문에 쭈글한 모습을 하고 덩그러니 내버려져 있었으나,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지. 한때 경희의 자부심이던 소라관은 둘러쳐진 풍스에 갇혀 시나브로 남아갔다.

하지만 완연히 쇠락해보이던 외관과는 달리, 그대는 그 사이에도 여전히 너끈했디. 2012년 2학기부터 그대는 소라관 앞마당을 빛발로 내주었다. '도시농부학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올해도 그 빛발을 가꾸며 먹거리문제부터 환경개선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다.

이제 안녕을 고해야 하고, 또 이런 순간이 와버렸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는 않지만,



① 4년간 펜스가 설치된 소라관 주변은 풀이 무성해졌다

② 대학에서 축전, 대동제 등으로 이름이 바뀌는 과정에도 행사의 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③ 1972년 유산번대시위가 처음 시작된 장소 역시 노천극장이었다

④ 1962년 신입생 환영회 이후 매년 입학식들이 이곳에서 처음 모였다

⑤ 91년 8월에 열렸던 청년학생들대축전 페미식 등 변곡점마다 노천극장은 주요한 장소였다

⑥ 출입생들을 떠나보내는 것 역시 노천극장의 역할이었다

⑦ 1999년 개교 50주년 기념행사 당시 비가 많이 와 사람들은 우비를 입고 우산까지 썼다

⑧ 이제 하늘해진 소라관은 오는 20일 철거되며, 당분간 주차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1959년 10월 완공 관객 2만 명 수용

노천극장 56년의 역사

남기원
경희기록관 계장

장은 1959년 10월에 완공될 수 있었다. 총 3,662평 규모에 2만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장이 탄생한 것이다. 아름답고 독특한 모양 때문에 어느 때부터인가 소라관이라 불리게 된 무대는, 객석에까지 소리를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8개의 아치를 연속적으로 배치했다. 무대 앞에는 2개의 분수대를 만들어 물이 뿜어져 나오도록 했는데, 햇살 좋은 날이면 무지개를 만들어 행사장을 장엄하고 화려하게 빛내주었다.

이렇게 완공된 노천극장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다. 노천극장에서 열린 최초의 행사는 1959년 10월에 개최된 개교 10주년 기념 제4회 대학제였다. 이를 시작으로 대학의 수많은 공식행사가 이곳에서 열렸다. 평화의 전당이 완공되기 이전에는 대부분

기록에 의하면 노천극장은 대규모 실내 공연장을 지을 여력이 없었기에 선택된 대안이었다고 한다. 노천극장을 계획하던 당시 서울캠퍼스에는 1954년부터 시작된 '대학건설 5개년 계획'에 따라 본관, 제육대학관(지금의 네오내선스관), 문과대학관, 등용문, 교시팀, 대운동장 등이 줄줄이 건설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고등학교에서 공연장을 지어 선택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고, 학생들의 학업 외 활동을 지원하며,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펼칠 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건설할 수 있는 공연장을 구상하게 되었고, 결국 선택된 것이 그리스의 원형극장과 같은 형태의 야외 공연장이었다.

'대강당'을 뒤로 미루고 선택된 공사였지만, 노천극장을 짓는 날이 결코 쉬웠던 것은 아니다. 우선 적합한 부지를 찾아야 했다. 다행히 문과대 앞 낮은 지대에 있던 소운동장의 생김새가 노천극장의 입지로 적합했다. 문과대에서 대운동장 쪽으로 끼고 들어가는 둔덕은 반원형의 스텐드로 조성하기에 알맞았다. 스텐드가 끝나는 곳에 무대를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씌우면 그럴듯한 대규모 야외 공연장이었다.

이름답고 독특한 모양 때문에 소라관이라 불리게 된 무대는, 객석에까지 소리를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8개의 아치를 연속적으로 배치했다.

가장 큰 문제는 무대 구조였다. 야외 공연장 기기에, 관중들의 이목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무대의 소리를 객석에까지 전달할 수 있는 구조물이어야 했다. 그런데 당시 이러한 건설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 이어서 국내에는 막강히 참고할 자료가 없었다. 결국 무대를 설계하기 위해 전 세계 각지에서 자료를 수집했고, 그 결과 의미 있는 레퍼런스로 채택된 것이 미국의 할리우드(Hollywood Bowl)의 사례였다. 로스 앤젤레스에 위치한 할리우드 볼은 클래식과 팝을 비롯한 각종 문화공연이 열리는 1만 8천석 규모의 세계적인 야외 공연장이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노천극장과 규모로 비슷하고, 자연地形을 적절히 이용해 디자인으로 건설한 방식도 우리의 경우와 유사해서 이 무대 건축물의 구조를 차용해 노천극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1958년 6월, 드디어 공사가 시작되었다. 타원형의 둔덕을 바탕으로 쭉은 조정 기관과 함께 디자인되었으며, 그 끝부분에서는 무대 건축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무대를 빙울을 아치형 지붕 공사가 까다로웠다. 폭 27m, 높이 15m, 깊이 11m의 아치형 지붕을 콘크리트로 타설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다. 큰 사고도 있었다. 한 번은 업자와의 계약으로 지붕이 내려앉았고, 다른 한 번은 지붕이 빙울을 벗어나면서 지붕을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천극장은 청춘의 열정과 끼기의 발산되는 공간이기도 했다. 축제 때가 되면 노천극장은 젊음의 열기와 함성으로 가득 찬다. 응원체 혹은 조정 기수들의 공연 때 모든 학생들은 어깨를 짚고 같은 노래, 같은 율동, 같은 구호를 외치며 하나가 된다. 2002년 월드컵 당시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구성원들이 다함께 경기를 관람하며 '대한민국'을 소리 높여 외치기도 했다.

얼마 후 노천극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한다. 지난 57년 동안 경희를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이었고, 수많은 경희인에게 저마다의 추억을 선사한 공간인 노천극장은 이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고 서운한 동시에 커다란 짐을 져야 하는 느낌이다. 이제 노천극장의 모습을 보존하고 그 기억을 되살리는 일은 온전히 경희기록관의 몫으로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16개월 동안 연인원 5천 명의 인부가 동원된 끝에, 노천극